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하다

2부



연구진 김형오 부연구위원 eventkim2000@jd.re.kr
 연구진 이성재 연구위원 cityarchi@jd.re.kr
 연구진 양지인 연구원 sunshine@jd.re.kr

- Chapter 1 | 상징문화공간의 기본개념과 주요과제
- Chapter 2 |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 Chapter 3 | 상징문화공간의 공간구상
- Chapter 4 | 단계별 추진전략
- Chapter 5 | 사업규모 및 소요자원
- Chapter 6 | 마무리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1년 3월 7일 vol.31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 발행인 : 원도연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필요하다. 2부**

Contents

Chapter 1	상징문화공간의 기본개념과 주요과제	3
Chapter 2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5
Chapter 3	상징문화공간의 공간구상	8
Chapter 4	단계별 추진전략	9
Chapter 5	사업규모 및 소요자원	10
Chapter 6	마무리	11

Chapter 1

상징문화공간의 기본개념과 주요과제

전북의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전라감영복원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이슈브리핑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상징문화공간 조성의 기본개념과 주요과제를 살펴보고, 단계별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 중 기존의 문화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신규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장소성 및 상징성의 극대화는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도민의식조사 결과와 전주시가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징문화공간의 최적 입지로 선정된 전라감영터의 최대 과제는 구도심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람을 집객시킬 수 있는 공간 및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상징문화공간의 조성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전라감영터 주변에는 한옥마을, 경기전, 객사, 테마거리 등 다양한 문화자원 및 시설, 공간들이 내재되어 있어 이들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요구되며, 구체적 수단으로 문화적 도심재생을 통한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공간은 단일 시설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설물들이 군집된 형태 또는 시설물과 외부공간이 복합된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 또한 단일공간과 공간들간의 조합, 시설물외에 어느 한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 등 무형의 자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전라감영터 주변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풍납문, 경기전, 한옥마을 등이 있으며, 구 도청사 동편에 위치한 의회동은 근대문화 양식을 내포하고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양호하고, 객사 뒤편의 젊은이의 거리,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등 테마거리는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전라감영터에 상징문화공간 조성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신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조선~근대~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활용하여 우선 문화인들과 도민이 전라감영터에 모일 수 있는 집객력, 그리고 집객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조성하는 상징 문화공간의 개념은 대상지 주변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재생, 즉 문화적 도심재생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상징 문화공간의 조성 방향이 문화적 도심재

생임을 고려하여 상징 문화공간 조성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의 집객을 유인할 전라북도 상징문화 거점 조성을 통한 대표성 및 상징성 창출이며, 둘째는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기존 문화적 자산의 가치 부여 및 연계·활용을 통한 문화공간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문화적 도심재생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상징 문화공간 조성 목적의 주요 과제는 크게 사람의 집객을 통한 문화공간 거점 조성과 전통문화공간과 현대 문화공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다.

문화공간 거점은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공간들을 대표하고, 발전 잠재력이 양호한 요소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화공간 단절의 극복은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의 상호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전라감영 주변에는

한옥마을, 경기전, 객사, 테마거리 등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들이 내재되어 있어 이들 자원간 상호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상징문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내용으로 전통·현대문화공간들을 기능적·시각적·동선적으로 연계시키고, 소통의 의미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상반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객사 주변의 테마거리(신규 상업시설 밀집)와 전라감영터 주변(기존 상업시설)의 단절 극복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옥마을 일대의 전통문화공간, 테마거리 주변의 현대문화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근대건축물인 구 전북도청사의 의회동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 활용방안으로 기능적 연계를 위해 풍납문(전통)~의회동(근대)~객사(현대)에 이르는 단순한 선적 형태로 구성된 감영1길에 면적인 문화공간 형태로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객사(현대)에서 풍납문(전통)에 이르는 감영1길을 시각적·동선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2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전라감영터에 상징문화공간 조성시 주요과제로 도출된 문화공간 거점 조성과 문화공간의 단절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상징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단계	전략 1	↑	❖ 천년광장 조성
	상징문화공간 거점 조성		❖ 천년문화창작센터 조성
2단계	전략 2	↑	❖ 상징문화예술 창작거리 조성
	전통·현대문화공간의 네트워크		❖ 소통의 거리 조성
3단계	전략 3	↑	❖ 감영테마호텔 건립
	복합문화공간 조성		❖ 스타키텍트(starchitect) 건립

첫째, 상징문화공간 거점 조성을 위한 천년광장 및 천년문화창작센터 조성이다. 지역차원의 공간구조와 지구(블록)차원의 용도 및 활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라감영터를 상징 문화공간의 핵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인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매체 또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상징공간이 필요하다.

전라감영터에 조성되는 천년광장은 도민의 기억과 흔적을 공유하며,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사이트의 역사적 의미라는 단순가치에 국한되기 보다는 광역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테마거리

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 또는 문화공간의 잠재력을 전라감영터에 응집시켜 문화활동의 수렴 기능을 담당



▲천년광장 사례 :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국제현상설계 참여작 (동대문 월드디자인파크 & 콤플렉스)

하고, 동시에 주변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즉, 천년광장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시키는 문화향유 공간으로서의 광장이며, 전통과 현대, 도민과 관광객 및 예술인 등이 소통하는 광장으로 상징문화공간의 거점 공간이다.

천년문화창작센터는 근대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 전북도청사 의회동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위해 함께 와서 모이고 참석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문화예술공연 단체의 상주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문화예술인 재능기부를 통해 도민과 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천년광장이 핵심공간으로서의 광장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제공하는 보완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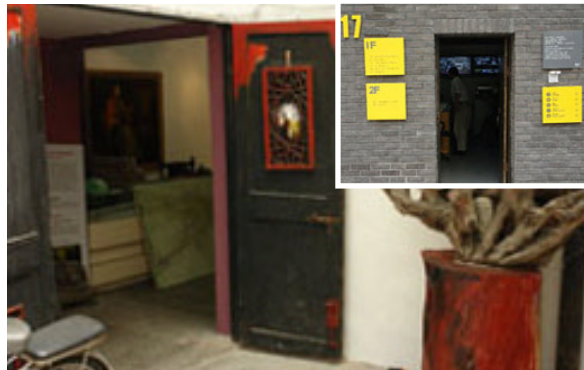


▲천년문화창작센터 사례 : 부산 원도심 문화창작공간 '또따또가'

둘째, 전통·현대문화공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와 소통의 거리 조성이다.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양 문화블록 간의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공간적·문화적 기호

가 필요한데, 한옥마을과 견고싶은 거리 또는 영화의 거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線)적인 문화기호를 도입하여 양 블록간의 네트워크화가 요구된다.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는 천년광장 주변의 빈 점포(견고싶은 거리와 영화의 거리의 결절점에서 부터 천년광장 서편)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객사 주변의 현대 문화공간과 상징 문화공간 거점



▲상징문화예술 창작거리 사례 : 상하이 모간산루 창작거리

(전라감영)을 연계하고, 상징 문화공간 거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들어 창작거리에 입주한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전시(천년광장)를 통해 천년광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천년광장에서 시각적·동선적으로 연계되는 거리로 조성하면 현대 문화공간을 찾는 방문객을 상징 문화공간 거점으로, 그리고 전통 문화공간으로 유인시키는 기능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소통의 거리는 도심부에서 풍남문에 대한 시야 확보 및 동선 유도로 상징성과 연결성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조선(풍남문, 경기전 등)~근대(전라감영)~현대(테마거리)로 이어지는 역사의 길(전통문화도시의

중심거리)을 조성하여 공간적·시각적·역사적 소통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가로변 상가 건물 신축 후 분양을 통한 수익모델을 고려한다.



▲소통의 거리 사례 : 일본 요코하마 모토마치

셋째,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감영테마호텔과 스타키텍트 건립이다. 장기적으로는 빌바오와 시드니 등의 사례처럼 구도심 주변의 시민과 상징문화공간을 찾는 방문객들간의 문화가치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복합적인 형태의 문화공간을 통해 전라북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징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영테마호텔은 완산경찰서와 풍남문 사이의 부지에 비즈니스룸과 스위트룸 중심의 호텔을 건립하여 핵심 수익시설로 활용하고,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대규모 방문객과 향후 상징문화공간 중심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징문화공간의 고급 숙박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스타키텍트(starchitect)는 상징문화공간의 랜드마크 시설로서 완산경찰서와 그 배후블록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참여를 통한 국제 공모로 진행하여 향후 국가상징 문화공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전통문화공간(한옥마을 일대)과 근대문화공간(천년문화창작센터) 및 천년광장을 시각적으로 연계시키는 오픈공간 형태로 조성하여 한옥마을과 상징문화공간의 중심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스타키텍트 사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프랑스 파리 폼피두 센터

Chapter 3

상징문화공간의 공간구상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문화가 투영된 각각의 공간들은 시대의 켜(Layer)를 구성하고 있어 기능적 구분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객사와 테마거리 주변은 현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경기전과 한옥마을 주변은 전통문화공간, 천년문화창작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구 전북도청의 의회동은 근대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혼재되어 있는 문화자원 가치를 명확히 도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천년광장과 천년문화창작센터가 위치하는 근대문화공간을 상징 문화공간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사람의 집객 및 문화활동을 수렴하고, 수렴된 사람과 문화활동을 현대문화공간과 전통문화공간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현대문화공간과 근대문화공간, 근대문화공간과 전통문화공간을 기능적·동선적·시각적으로 연계되도록 선적인 형태의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즉, 현대문화~근대문화공간의 연계는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 조성을 통해 연계시키고, 근대문화~전통문화공간의 연계는 소통의 거리 조성을 통해 연계시킨다.

〈그림 1〉 상징문화공간 구상도



Chapter 4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사업은 구도심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전라감 영터에 사람을 집객시키고, 문화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2011년~2014년)하되, 사업의 추진기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실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위시설물의 대형 건축물의 입지를 통한 상징문화공간 조성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시설, 공간과 공간, 또는 시설과 공간 등을 연계하여 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현실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다시말해, 1단계는 사람의 집객, 문화활동의 다양화, 정체성 및 대표성 등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단일 사이트에 한정시키는 시설건축형을 지양하고, 기존 자원 및 시설에 문화 및 상징성 부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기능이 복합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형태를 고려한다.

즉, 공사비용이 적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천년광장 조성, 천년문화창작센터 조성,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 및 소통의 거리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상징문화공간의 핵심 거점인 천년광장의 기능 보완 및 강화, 그리고 전복을 대표하는 상징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2015년~2020년)한다.

1단계 사업을 통해 방문객 증가를 유인하고, 향후 체류시간 연장을 통해 구도심의 문화적 도심재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감영테마호텔 건립과 스타키텍트 건립이다.

〈표 2〉 단계별 추진 전략

단계별 전략		주요과제	비 고
1단계	상징문화거점 조성	천년광장	편의공간 및 조경시설 공사
		천년문화창작센터	의회동 리모델링→임대
	문화공간 네트워크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	매입→리모델링→임대
		소통의 거리	매입→철거→신축→분양
2단계	복합문화공간 조성	감영테마호텔	매입→철거→신축
		스타키텍트	매입→철거→신축
		공영주차장	

Chapter 5

사업규모 및 소요재원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총 부지면적은 31,744㎡(상징문화거점조성 16,114㎡, 문화공간네트워크 15,630㎡)이며,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토공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용은 약 66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총 부지면적은 76,089㎡이며, 토지·건물 매입 및 철거, 토공사, 조경공사, 건축공사 등을 포함한 총 공사비용은 약 1,4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단계와 2단계를 포함한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문화공

간 구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2,086억원 소요되며, 공정별로는 매입 및 철거비용이 약 858억원(41.1%), 공사비용이 약 1,228(5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징문화공간 구성에 따른 재원은 1단계로 추진하는 소통의 거리조성(객사 건너편에서 풍납문에 이르는 가로변 건물을 매입하여 신규 문화·상업공간 조성을 통해 분양)과 2단계로 추진하는 감영테마호텔과 스타키택트(상업공간 분양)를 통해 확보한다.

〈표 3〉 사업규모 및 공사비 추정

구분	구분	규모(㎡)	공사비용(백만원)						
			매입 및 철거	토공사	조경공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합계	
1 단계	상징문화	천년광장	부지면적 14,454	281	1,706	2,168			4,155
	거점조성	천년문화창작센터	연면적 4,988(의회동)				998		998
	문화공간	상징문화예술창작거리	연면적 10,408	2,870			2,094		4,964
	네트워크	소통의 거리	연면적 30,000	11,466				45,000	56,466
	소 계			14,617	1,706	2,168	3,092	45,000	66,583
2 단계	복합문화 공간조성	감영테마호텔	연면적 12,450(객실300실)	26,331	2,549	3,240		32,400	64,520
		스타키택트	연면적 11,200	34,773	2,124	2,700		27,000	66,597
		공영주차장	대지면적 12,000(주차300대)	10,104	412	380			10,896
	소 계			71,208	5,085	6,320		59,400	142,013
계			85,825	6,791	8,488	3,092	104,400	208,596	

Chapter 6

마무리

본 연구는 전통문화예술 도시를 추구하는 전북 또는 전주의 문화적 상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으며,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도내 상징문화공간으로 간주할 만한 대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문화공간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공간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상징문화공간의 필요성은 명확해진다.

도민의식조사에서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상징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6%로 나타났으며, 복합문화공간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또한, 상징문화공간으로서 명성을 확보한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문화공간 조성을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예술인 중심의 창작활동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접공간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형태를 보이며, 추진과정에서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및 이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내 상징문화공간의 대상지는 도민수요를 고려하고 상징적 문화공간과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전라감영

터(구 전북도청)가 최적의 입지로 분석되었다. 전라감영터는 오랫동안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역사문화의 현장으로 지금까지도 복원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도심쇠퇴 과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라감영터 주변은 한옥마을, 경기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공간과 객사 뒤편의 현대문화공간의 중간적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과 전주시 문화도시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는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의 단절로 인해 상징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상징문화공간은 사람의 집객을 통한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전북의 대표성 및 상징성을 강화시키고, 전통문화공간과 현대문화공간을 연계시키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라감영터를 중심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상징문화공간 거점 조성, 전통~현대문화공간의 네트워크, 복합문화공간을 설정하였다.

상징문화공간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현

실성을 고려하여 구) 전북도청 부지에 천년광장을 조성하고, 의회동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천년문화창작센터를 제안하였다.

전통~현대문화공간의 네트워크는 객사 뒤편의 현대문화공간과의 연계를 위해 상징문화예술 창작거리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공간과의 연계를 위해 소통의 거리 조성을 제안하였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숙박수요에 대응하는 감영테마호텔과 상징문화공간과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건축물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의 현실성 제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1단계로 상징문화거점 조성 및 문화공간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민자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 효과의 극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초기부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징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1단계 66,583백만원, 2단계 142,013백만원으로 총 2,08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징문화공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남는다. 먼저,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여 년 간 계속 되어왔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구도심권 상권회복을 위해 전라감영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원방법 및 사업규모, 시기, 절차, 재원확보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이다. 무엇보다 사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확정짓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들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가 조직과 예산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한 전북도는 본 사업을 위해 재원조달과 행정지원을 맡으며 특히 도청내 '상징문화공간 조성 사업단'을 별도를 설치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통합(원스톱) 진행하고 예산을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라감영터의 복원을 통해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만큼 '삶의 터전'으로서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성과정의 행정 프로세스의 검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